

敬長歌



[해제]

<경장가(敬長歌)>는 『강륜보감권지일(綱倫寶鑑卷之一)』에 수록된 가사 작품이다. 『강륜보감권지일(綱倫寶鑑卷之一)』은 책명에서도 나타나듯이 사람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윤리, 도덕에 대해 노래한 작품들을 모아 놓은 가사집이다. 이 책에는 <경명가(敬命歌)>를 비롯하여, <유례가>, <거상제항가>, <근신가>, <대효가>, <사군가> 등 총 28편의 가사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경장가(敬長歌)>는 ‘경장지도(敬長之道)’, 즉 어른을 공경하는 도리에 대해 노래한 작품으로 교훈가사에 속한다. 아버지의 벗을 뵈 때 갖추어야만 하는 예절과, 자신보다 연장자를 대할 때의 마음가짐과 올바른 행동, 선생을 만날 때 갖추어야 하는 예법, 어른을 위하여 청소할 때 지켜야 할 예도(禮道) 등을 서술하고, 끝 부분에서 자제(子弟), 소년(少年)들에게 옳지 못한 방심(放心)을 거두고, 덕성(德性)을 함양하여 경장지도(敬長之道)를 행할 것을 당부하는 것으로 작품은 마무리된다. 작품의 내용이 『소학(小學)』의 「명륜제이(明倫第二)」 편 중 ‘장유지서(長幼之序)’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부분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어, 익숙한 『소학(小學)』의 경구를 가사체로 풀어내어서 이 작품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원문]

有毀譽이 업시 하며 有命에 必從하고
 夫婦之道 信實하야 盛衰로 改節을 안코
 存亡에 易心을 안으니 患難을 當케 된덜
 仁義之心 忘失할까 婦德이 重重하니
 貞烈한 女子로다 女子 되야 如此하면
 家道을 昌盛하니 和平家가 어딘가
 長幼篇

敬長歌

어화鄉黨 兒孩덜아 愛親敬長 하야보시
 無禮하난 鄉黨에난 長幼之序 업서신니
 兒孩업난 鄉黨이라 血氣方丈 자랑마소
 無情歲月 若流波라 그리말고 悔過하야
 敬長之道 아라다가 우리尊長 恭敬하시
 二三歲된 孩提童이 그어버이 愛之흥을
 아지못하리 업스며 及其長年 되야난
 그兄을 恭敬흥을 아지못하리 업나니
 徐行하야 長者보다 後行하면 恭順이요
 疾行하야 長者보다 先行하면 不恭이라
 父之執을 뵈옵거던 父母갓치 恭敬하디
 進하라말삼 아니커던 敢이進치 아니하며
 退하라말삼 아니커던 敢이退치 아니하며
 말삼뜻지 아니커던 敢이對答치 아니하며
 年長이 以倍어던 아비갓치 섬기고
 年長이 十年어던 兄갓치 섬기고

年長이 五年어던 比肩하야 倅르고
年長이 相若어던 知己하야 作朋하며
長者의게 謀議할식 几와杖을 操執하야
반다시 從할찌니 長者가 問議어던
辭讓치 아니하고 對答흥이 非禮라
先生을 從之할식 越路하야 與人과
말하지 아니하며 先生을 遭道하야
趨進하야 正立하고 拱手하야 敬拜하며
先生이 與言어시던 恭順이 對答하고
先生이 不言어시던 敬拜하야 趨退하고
長者을 從之하야 丘陵에 올라가서
반다시 長者의 所視을 向하식
年德이 俱高하니 能이人道을 가리치네
尊長이 提携어시던 幼兒者난 兩手로
尊長의손을 받들고 尊長의게 旁挾하야
佩釵하난 타시하며 辟咄하야 詔어시던
掩口하야 對答하며 長者을 爲하야
掃地을하난 禮道난 捉帚을 箕上에언자며
掃地을 할적에난 一手로 捉帚하고
一手衣袂을 擧하야 帚前을 拘障하며
且掃하야 且移하야 그塵이 長者의게
不及하게 하며 그箕로 自向하야
糞穢을 斂取하되 箕塵을 不見하식
於我子弟 少年덜아 驕恣이며 傲慢이며
惰怠이며 不正하난 放心을 能収하야
灑掃應對 先習하고 그德性을 涵養하면
우리尊長 섬길식니 敬長之道 업단말가

二.幼禮歌

灑掃이며 應對이며 進退이며 揖揚이며
飲食이며 辭讓흥이 恭順하면 幼禮되니
將次席에 나갈식 容貌을 毋怍하며
兩手로 握衣하야 齊尺을 쓰게하며
衣服을 毋撥하며 足容을 毋蹶하며
先生의 書策과 琴瑟이 在前어던
跪坐하야 遷移하며 戒之하야 毋越하고
坐容을 不搖하야 반다시 平安이하며

[현대역]

유훼(有毀)30함이 없이 하며 유명(有命)31에 필종(必從)32하고
 부부지도(夫婦之道) 신실(信實)33하여 성쇠(盛衰)로34 개절(改節)35을 앓고
 존망(存亡)36에 역심(易心)37을 앓으니 환난(患難)을 당(當)하게 되들
 인의지심(仁義之心) 망실(忘失)38할까 부덕(婦德)이 중중(重重)39하니
 정렬(貞烈)한 여자(女子)로다 여자(女子) 되어 여차(如此)40하면
 가도(家道)41를 창성(昌盛)하니 화평가(和平家)가 어디인가

경장가(敬長歌)

어화 향당(鄉黨)1 아이들아 애친경장(愛親敬長)2하여 보세
 무례(無禮)한 향당(鄉黨)에는 장유지서(長幼之序)3 없으니
 아이 없는 향당(鄉黨)이라 혈기(血氣) 방장(方丈)4함을 자랑 마소
 무정세월(無情歲月)5은 약류파(若流波)6라 그렇게 하지 말고 회과(悔過)7하야
 경장지도(敬長之道)8 알아다가 우리 존장(尊長)9 공경(恭敬)하세
 이삼세(二三歲) 된 아이들이라도 그 아버이를 사랑함을
 알지 못할 이 없으며 장년(長年)이 되어서는
 그 형(兄)을 공경(恭敬)함을 알지 못할 이 없나니
 서행(徐行)10하여 장자(長者)11보다 뒤에 가면 공순(恭順)12이요
 질행(疾行)13하여 장자(長者)보다 앞에 가면 불공(不恭)14이라
 부모님의 벗을 빙게 되면 부모(父母)님처럼 공경(恭敬)하되
 나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면 감히 나가지 아니하며
 물러가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면 감히 물러나지 아니하며
 말씀을 묻지 아니 하시면 감히 대답(對答)하지 아니하며
 나이가 갑절이 많으면 아버지처럼 섬기고
 나이가 십년(十年) 위라면 형(兄)같이 섬기고
 나이가 오년(五年) 위라면 比肩(비견)15하여 따르고
 나이가 서로 같거든 자신처럼 알아 친구로 만들며
 어른에게 모의(謀議)16할 때는 안석(案席)17과 지팡이를 조집(操執)18하여
 반드시 따를지니 어른이 문의(問議)19하실 경우
 사양(辭讓)하지 아니하고 대답(對答)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선생(先生)을 따를 때는 길을 건너서 여인(與人)20과
 말하지 아니하며 선생(先生)을 조도(遭道)21하면
 추진(趨進)22하여 바른 자세로 서서 공수(拱手)23하여 경배(敬拜)24하며
 선생(先生)이 말씀 하시면 공순(恭順)25하게 대답(對答)하고
 선생(先生)이 말씀을 안 하시면 경배(敬拜)한 뒤 추퇴(趨退)26하고
 어른을 따라 구릉(丘陵)27에 올라가서
 반드시 어른이 보는 곳을 향하세
 나이와 덕망(德望)이 모두 높으니 능히 사람의 도리를 가르치네

존장(尊長)28이 제휴(提携)29하시면 어린 사람은 양수(兩手)30로
 존장(尊長)의 손을 받들고 존장(尊長)에게 방협(旁挾)31하여
 패인(佩劍)32하는 듯이 하며 입 곁에 대고 말씀하시면
 입을 가려서 대답(對答)하며 어른을 위(爲)하여
 소지(掃地)33하는 예도(禮道)는 잡은 비를 쓰레받기 위에 얹으며
 소지(掃地)할 때에는 한 손으로 비를 잡고
 한 손으로 옷소매를 들어 비 앞을 가리며
 잠깐 쓸어 빨리 옮겨 그 먼지가 어른에게
 미치지 않게 하며 그 쓰레받기를 자신을 향하게 하여
 분예(糞穢)34을 영취(斂取)35하되 쓰레받기의 먼지를 보이지 말아야 한다
 나의 자제(子弟) 소년(少年)들이 교자(驕恣)36며 오만(傲慢)37이며
 타태(惰怠)38며 옳지 못한 방심(放心)39을 능히 거두어
 쇄소응대(灑掃應對)40 먼저 익히고 그 덕성(德性)41을 함양(涵養)42하면
 우리 존장(尊長)43 섬길 것이니 경장지도(敬長之道)44 없단 말인가

2. 유례가(幼禮歌)1

쇄소(灑掃)2이며 응대(應對)3이며 진퇴(進退)4이며 음양(揖揚)5이며
 음식(飲食)이며 사양(辭讓)6함이 공순(恭順)7하면 유례(幼禮)되니
 장차(將次)8 자리에 나갈 때는 용모(容貌)를 부끄러워 하며 변하지 않아야 하며9
 양쪽 손으로 하의를 들어 올려서[구의(摳衣)]10하여 옷의 아랫단이 땅에서 한 자를 뜨게 하며[제척(齊尺)]11
 의복(衣服)을 펴리지 말아야 하며[무발(毋撥)]12 족용(足容)13을 다급히 옮겨놓지 말아야 하며[무궤(毋蹶)]
 선생(先生)의 서책(書策)과 금슬(琴瑟)14이 재전(在前)15이어든
 무릎을 꿇고 앉아[궤좌(跪坐)]16하야 옮기어 놓아[천이(遷移)]17하며 조심하여[계지(戒之)] 타 넘지
 말아야 하고[무월(毋越)]
 좌용(坐容)18을 흔들지 않아[불요(不搖)] 반드시 평안(平安)이 하며

[각주]

- 30) 유훼(有毀) : 훼손함.
- 31) 유명(有命) : 명을 내림.
- 32) 필종(必從) : 반드시 따름.
- 33) 신실(信實) : 진실 되게 믿음.
- 34) 성쇠(盛衰) : 성하고 쇠함에 따라.
- 35) 개절(改節) : 절개를 고침.
- 36) 존망(存亡) : 존속과 멸망 또는 생존과 사망을 아울러 이르는 말.
- 37) 역심(易心) : 마음을 바꿈.
- 38) 망실(忘失) : 잃어버림.
- 39) 중중(重重) : 중요하고 또 중요함. 무겁고 또 무거움.
- 40) 여차(如此) : 이와 같이 함.
- 41) 가도(家道) : 집안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적 규범. 집안 살림을 하여 가는 방도.
 - 1) 향당(鄉黨) : 자기가 태어났거나 사는 시골 마을.또는 그 마을 사람들.예전에는 500집이
 - 2) 애친경장(愛親敬長) : 아버이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함.
 - 3) 장유지서(長幼之序) :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 지켜야 할 엄격한 차례와 복종해야 할 질서.오륜(五倫)의 하나인 장유유서(長幼有序)와 같은 뜻.
 - 4) 방장(方丈) : 방장(方壯)의 오기인 듯.방장(方壯)은 바야흐로 왕성하고 한창임을 뜻함.
 - 5) 무정세월(無情歲月) :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
 - 6) 약류파(若流波) : 흘러가는 물결과 같음.
 - 7) 회과(悔過) : 잘못을 뉘우침.
 - 8) 경장지도(敬長之道) : 어른을 공경하는 도리.
 - 9) 존장(尊長) : 일가친척이 아닌 사람으로서 자기보다 나이가 많음.또는 그런 사람.
 - 10) 서행(徐行) : 사람이나 차가 천천히 감.
 - 11) 장자(長者) :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또는 덕망이 뛰어나고 경험이 많아 세상일에 익숙한 어른.
 - 12) 공순(恭順) : 공손하고 온순함.
 - 13) 질행(疾行) : 빨리 감.
 - 14) 불공(不恭) : 공손하지 아니함.
 - 15) 比肩(비견) : 앞서거나 뒤서지 않고 어깨를 나란히 함.
 - 16) 모의(謀議) : 어떤 일을 꾀하고 의논함.
 - 17) 안석(案席) : 궤(几).벽에 세워 놓고 앉을 때 몸을 기대는 방석.
 - 18) 조집(操執) : 잡음.
 - 19) 문의(問議) : 물어서 의논함.
 - 20) 여인(與人) : 다른 사람.
 - 21) 조도(遭道) : 길에서 만남.
 - 22) 추진(趨進) : 빠른 걸음으로 나아감.
 - 23) 공수(拱手) : 왼손을 오른손 위에 놓고 두 손을 마주 잡아 공경의 뜻을 나타냄.또는 그런 예.
 - 24) 경배(敬拜) : 공경하여 절함.

- 25) 공순(恭順) : 공손하고 온순함.
- 26) 추퇴(趨退) : 빠른 걸음으로 물러남.
- 27) 구릉(丘陵) : 언덕.
- 28) 존장(尊長) : 일가친척이 아닌 사람으로서 자기보다 나이가 많음.또는 그런 사람.
- 29) 제휴(提携) : 행동을 함께하기 위하여 손을 잡아 이끌어 도와줌.
- 30) 양수(兩手) : 두 손.
- 31) 방협(旁挾) : 옆에 가까이 낀.
- 32) 패인(佩劔) : 칼을 옆에 참.
- 33) 소지(掃地) : 땅을 쓸.청소를 함.
- 1) 유례(幼禮) : 어려서의 예의, 법도.
- 34) 분예(糞穢) : 더러운 오물.
- 35) 염취(斂取) : 거두어 가짐.거두어 취함.
- 36) 교자(驕恣) : 교만하고 방자함.
- 37) 오만(傲慢) : 태도나 행동이 건방지거나 거만함.또는 그 태도나 행동.
- 38) 타태(惰怠) : 태만함.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없고 게으름.
- 39) 방심(放心) : 마음을 다잡지 아니하고 풀어 놓아 버림.
- 40) 쇄소응대(灑掃應對) : 물을 뿌려 쓸고 응대한다는 뜻으로, 집 안팎을 깨끗이 거두고 웃어른의 부름이나 물음에 응하여 상대함을 이르는 말.
- 41) 덕성(德性) : 어질고 너그러운 성질.
- 42) 함양(涵養) : 능력이나 품성을 기르고 닦음.
- 43) 존장(尊長) : 일가친척이 아닌 사람으로서 자기보다 나이가 많음.또는 그런 사람.
- 44) 경장지도(敬長之道) : 어른을 공경하는 도리.
- 2) 쇄소(灑掃) : 물을 뿌리고 비로 쓰는 일.
- 3) 응대(應對) : 상대하여 응답함. 손님을 접대함.
- 4) 진퇴(進退) : 나아가면 물러남.
- 5) 읍양(揖揚) : 허리를 구부려 절하고 펴고.
- 6) 사양(辭讓) : 자기에게 이로운 것을 겸손하게 응하지 않거나 받지 아니함.
- 7) 공순(恭順) : 공손하고 온순함.
- 8) 장차(將次) : 앞으로, 차차.
- 9) 무작(毋忤) : 변항이 없다. 부끄러워하지 않다.
- 10) 구의(摳衣) : 옷을 걷어 올림.
- 11) 제척(齊尺) : 옷을 바닥에서 한 자 떨어지게 하여 가지런히 하는 것.
- 12) 무발(毋撥) : 펄럭이지 않음.
- 13) 족용(足容) : 발의 동작.
- 14) 금슬(琴瑟) : 거문고와 비파.
- 15) 재전(在前) : 일찍이 지나간 적.
- 16) 궤좌(跪坐) : 무릎을 꿇고 앉음.
- 17) 천이(遷移) : 옮기어 바뀜.

18) 좌용(坐容) : 앉은 자세.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